

주요 내용

■ 국내총생산 99년 1/4분기의 주요 특징과 전망 ■

동향

- 99년 1/4분기 중 국내총생산은 4.6% 증가, 지표상으로는 경기 회복세를 나타냄
- 이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이 호전되고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
- 한편 다소 경기후행적인 성격을 가진 건설투자는 전년도의 그침한 수주 부진을 반영하여 감소세가 확대됨

주요 특징

- **(생산 회복에 의한 견인)** 국내총생산(GDP)이 증가한 것은 수요 측면의 증가보다는 98년 중 총수요에 비해 감소 폭이 컸던 생산이 점차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임
- **(부문별 불균형 심화)** 거시경제적으로 소비 및 수출이 증가세인데 반해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, 산업별로는 자동차와 반도체부문이 호조인데 반해 여타 부문은 그렇지 못해 산업간 성장 불균형이 심화됨

전망

- 생산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총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어려워, 생산 증가율은 98년 중 위축되었던 부분을 회복하는 수준, 즉 연간 5~6%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

국내총생산 99년 1/4분기의 주요 특징과 전망

이 보 성

1/4분기 국내총생산 동향

- 99년 1/4분기 중 국내총생산(GDP)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이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(물량기준)이 증가함에 따라 4.6%의 증가세를 기록
-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98년 1/4분기 -3.6%로 18년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1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섬
-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95년 불변가격 기준 국내총생산 수준은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1/4분기 수준을 넘어섬[실질국내총생산: 97년 1/4분기(96조 327억 원) → 98년 1/4분기(92조 6,137억 원) → 99년 1/4분기(96조 8,996억 원)]
-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1/4분기 중 각각 6.3%, 12.9%의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도 12.4% 증가하였음

< 생산 활동 및 지출항목별 증감률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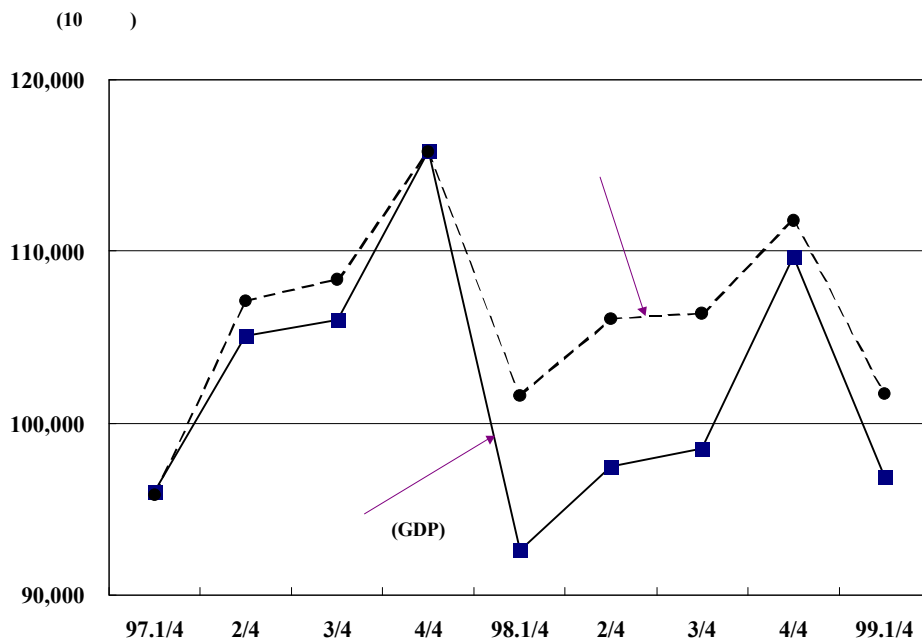
(전년 동기 대비, %)

	1996	1997	1998					1999
			연간	1/4	2/4	3/4	4/4	
국내총생산(GDP)	6.8	5.0	-5.8	-3.6	-7.2	-7.1	-5.3	4.6
최종소비지출	7.2	3.2	-8.2	-8.4	-9.7	-8.9	-5.8	5.0
(민간)	7.1	3.5	-9.6	-9.9	-11.2	-10.4	-6.9	6.3
(정부)	8.2	1.5	-0.1	1.3	-0.7	-0.6	-0.4	-2.2
총고정자본형성	7.3	-2.2	-21.1	-20.6	-23.7	-22.2	-17.9	-4.3
(건설)	6.1	2.3	-10.2	-5.9	-7.8	-12.0	-13.7	-13.7
(설비)	9.1	-8.7	-38.5	-38.3	-46.1	-39.3	-27.4	12.9
재화와 용역의 수출	11.2	21.4	13.3	25.7	13.2	8.0	8.8	12.4
재화와 용역의 수입	14.2	3.2	-22.0	-27.2	-25.5	-25.9	-9.0	27.5

특징 1 : 생산 회복에 의해 견인된 경제 성장

-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급등한 것은 수요 측면의 증가에 기인한다기보다는 98년 중 총수요에 비해 감소 폭이 컸던 생산이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음
- 1/4분기 중 국내총생산은 4.6%의 급등세를 보였지만 총수요는 0.1% 상승에 그쳐 현재 상황을 수요가 급증하여 발생하는 경기 과열 상태로 보기는 힘들
- 그보다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98년 수요 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컸던 생산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. 98년 중 국내총생산은 5.8%의 급감세를 보인 반면 총수요 감소율은 0.3%에 그쳤음
- 생산 회복세를 반영하여 98년 1/4분기 중 9.1조 원(95년 불변 가격 기준, 금수출로 인한 재고 감소분 2.3조 원 포함)에 달했던 재고 감소가 99년 들어 4.4조 원에 그침

< 국내총생산과 총수요와의 관계 >



주 : 총수요는 “소비+투자(재고 제외)+수출-수입”을 의미

특징 2 : 부문별 불균형 심화

- (수요 부문의 불균형) 소비 및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투자 부문, 특히 건설투자의 감소세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수입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
- 1/4분기 중 건설투자는 13.7%의 감소를 보였으며 수입은 무려 27.5%가 증가함
-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절대 수준을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1/4분기와 비교해 볼 때 소비 및 수출은 거의 회복되었거나 이미 넘어섰지만 투자는 여전히 70~80%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

< 수요 각 부문의 97년 1/4분기와 비교 >

	민간소비	설비투자	건설투자	수출	수입	총수요
$\frac{99\text{년 } 1/4\text{분기}}{97\text{년 } 1/4\text{분기}} (\%)$	95.7	69.7	81.2	141.3	92.8	105.2

- (생산 부문의 불균형) 경공업 부문은 아직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반면, 중화학공업은 자동차 및 반도체의 호조에 의해 13.8%의 고성장을 시현
- 중화학 공업 내에서도 자동차, 선박 등을 포함하는 운수장비와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기전자 부문은 각각 23.0%와 29.5%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비금속 광물, 산업용 기계 등은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했고 철강은 소폭 증가에 그침

< 제조업 부문의 1/4분기 성장률 추이 >

	제조업 전체	경공업	중화학공업						
			전체	석유·석탄	비금속 광물	철강	산업용 기계	전기전자	운수장비
증가율 (%)	10.7	0.2	13.8	11.8	-9.6	0.1	-14.8	29.5	23.0

전망

- 98년의 급격한 위축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생산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임
 - 98년 2/4분기 이후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1/4분기(-3.6%)보다 훨씬 낮았던 것을 감안할 때, 기술적 반등 효과만으로도 향후 생산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
- 현재 상황에서 총수요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
 - 최근의 소비 증가세도 주식시장 호조와 이연소비(98년 중 연기되었던 소비) 등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커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임. 여기에 고실업이 지속되고 임금상승률도 크게 상승하기 어려워 민간의 전반적인 구매력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
 - 비록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절대수준으로는 92~93년 수준에 불과하고 건설투자도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최근까지 급감세를 지속하고 있어 당분간 부진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
 - 또한,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가능성 등으로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운 반면 20%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수입(물량 기준)은 원자재 수입 증가 등으로 향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
- 이 경우 국내총생산은 98년 중 총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부분을 회복하는 수준, 즉 연간 5~6%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 - 1/4분기 중에도 나타났듯이 현재 상황은 생산이 증가하여도 총수요가 생산을 초과하여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요 부문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생산이 증가할 여지는 충분함

(bslee@hri.co.kr ☎ 724-4035)